

# 이음, 제주

A vibrant collage featuring a central acoustic guitar, a drum set, and various elements including flowers, musical notes, a fish, and a cityscape. The collage is composed of several overlapping, semi-circular segments with a white background. The guitar is a light brown acoustic model. To its right is a black drum set with a cymbal. Above the guitar is a yellow fish. To the left of the guitar is a large blue hydrangea flower. Various other elements include purple and blue flowers, green leaves, black musical note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cityscape,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person, and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person's face. The overall style is artistic and eclectic.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2021. 01 기준)

■ 활성화 지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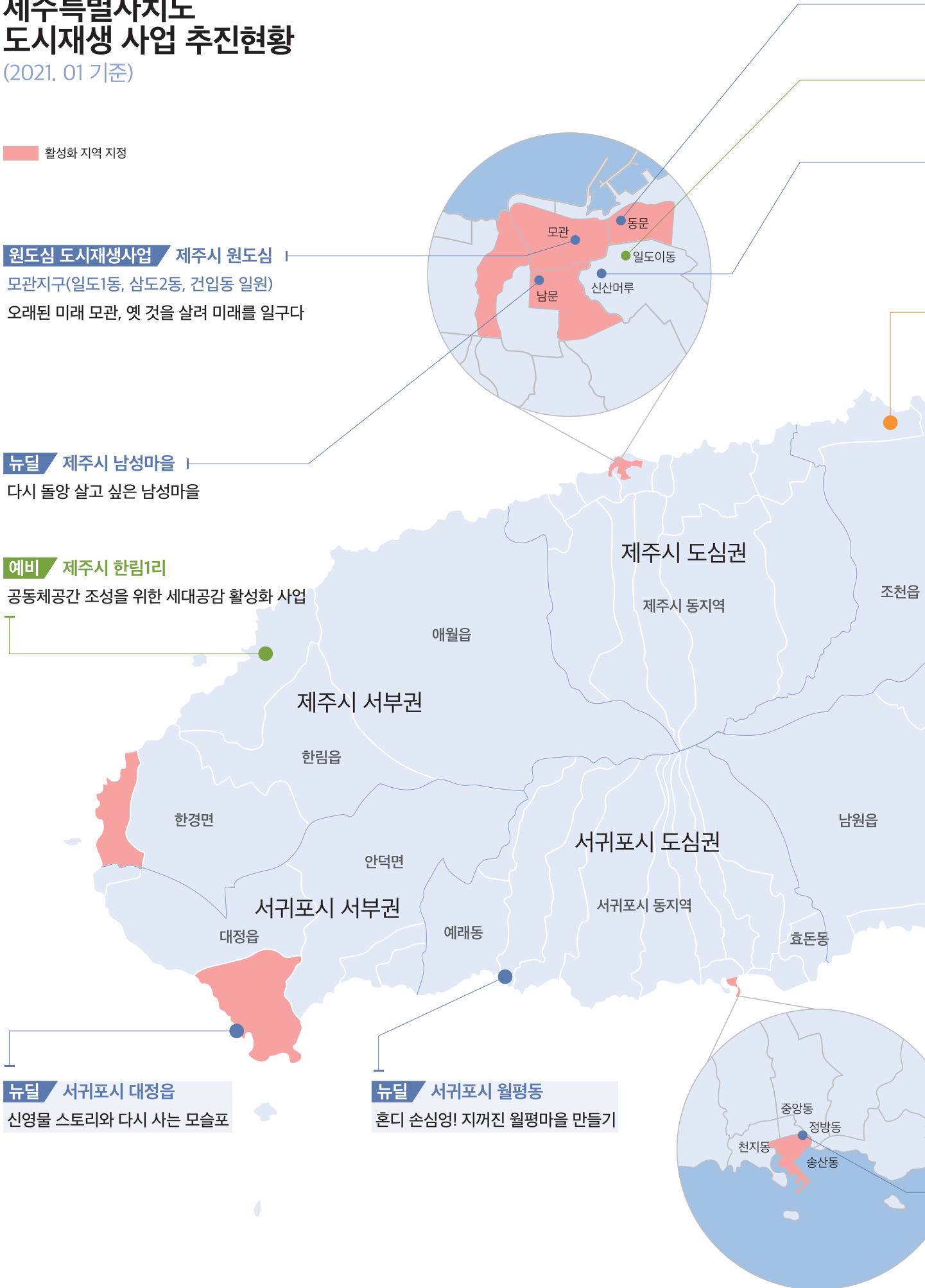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오래된 미래 모관,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

**뉴딜** 제주시 남성마을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예비** 제주시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을 위한 세대공감 활성화 사업

**뉴딜**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뉴딜** 서귀포시 월평동  
흔디 손심영! 지켜진 월평마을 만들기



# 재생, 플레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재생입니다.  
낡은 것을 고쳐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음악, 영상기기에서 쓰이는 말로 바꿔 생각해봤습니다.

뒤로 돌리지도 않고, 너무 빨리 달려가지도 않으며, 멈추지도 않고,  
[Play] 시켜 우리만의 속도로 재생할 수 있는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을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즐기고, 마을에서 놀고, 주민들이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여름, 우리 함께 놀아봅시다.

## CONTENTS

02

[커버스토리] 놀자! 세상만사 모든것을!

04

[시흥 사례로 보는 문화예술] 따로 또 같이 노는 법 - 문화예술

06

[놀거리] 월평마을

리트릿을 위한 가장 좋은 마을 - 월평  
달을 닮은 마을, 해처럼 따뜻한 사람들  
수국, 피다 - 답다니 수국밭  
월평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월평마을 안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설 - 주거지원형 유형

18

[먹거리] 대정읍

도시락에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  
제주의 먹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설 - 일반근린형 유형

24

[볼거리] 제주 원도심

먹고 노는 잡화점 - 칠성로 오각집  
제주 사람들의 손맛나는 물건 - 포스트아일랜드

28

[도시재생과 예술이 만난 해외사례]

베이징 798 예술구

30

[칼럼] 놀이와 도시재생

32

[다시 웃음이 꽃피는 놀이] 월평 마을 어르신 놀이 워크숍

34

제주의 도시재생 업데이트

뉴딜 제주시 건입동(건입동 일대)

김만덕의 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예비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 스스로 돌봄 공동체플랫폼 구축

뉴딜 제주시 신산머루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인정 제주시 함덕리

함덕에 쏙 공감센터 조성

구좌읍

제주시 동부권

성산읍

표선면

서귀포시 동부권

뉴딜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 놀자! 세상만사 모든 것을!

성숙한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이 당연해졌습니다. 인구의 증가나 산업기술의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 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것을 막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흔해져버린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다시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 사업이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지가 이 네글자에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생, 이 단어를 음악이나 영상을 다루는 기기의 ‘Play’ 버튼으로 대체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뒤로 돌리지도 않고, 너무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않고, 잠깐이라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 제주를 Play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Play, 즉 ‘놀다’는 동사형에 집중했습니다.

놀이(Play)는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에서 식사, 수면, 호흡, 배설 등 직접 생존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외하고 ‘노동’과 대립하는 개념을 가진 활동을 말합니다. 그저 휴식일 수도 있고, 취미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고있네’와 같은 비아냥이나 ‘놀이만 하면 짐승’이라는 흔한 교훈처럼 놀이를 아무 쓸모도 없는 무능력이나 게으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 노동만이 절대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고, 사람들의 근육을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춰 사람들이 노는 법을 잊게 했습니다. 급기야는 놀이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착실한 노동자가 아닌 시간에는 탐욕스러운 소비자가 되기를 중용합니다.

다시 놀기 시작해야 합니다. 『호모 루덴스』를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지루하고 지겨운 일상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은 놀이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우린 놀 그래왔던 것처럼 점점 더 잘 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 여가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에 관광의 섬 제주가 가장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귀포의 월평 마을에 마련한 꽃놀이와 달놀이, 대정의 역사를 담은 도시락 먹방, 맥주를 곁들인 공연과 제주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예술품까지. 우리의 생물학적 욕구와 아무 상관 없고, 자본주의의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놀이를 통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정으로 이루려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니체는 놀이를 ‘어떤 세계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는 좀비들이 미래마저 고정된 것으로 만든다며 그 어떤 변화도 만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논다는 것은 미래를 만들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 스스로와 함께 노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도시를 즐기시다!





# 따로 또 같이 노는 법 문화예술

국내 백신 접종률이 15%를 넘겼다.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예약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잔여백신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대 IT 기업의 서버를 다운시키기에 이르렀다. 모두가 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하다. 지구의 많은 다른 나라와 달리 락다운(lockdown)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우리지만 정서적 락다운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를 만나지 못했고, 웃는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며, 긴 대화를 나눌 공간을 잃었다. 팬데믹은 우리가 어울려 서로를 느끼고 마음을 나눌 기회를 앗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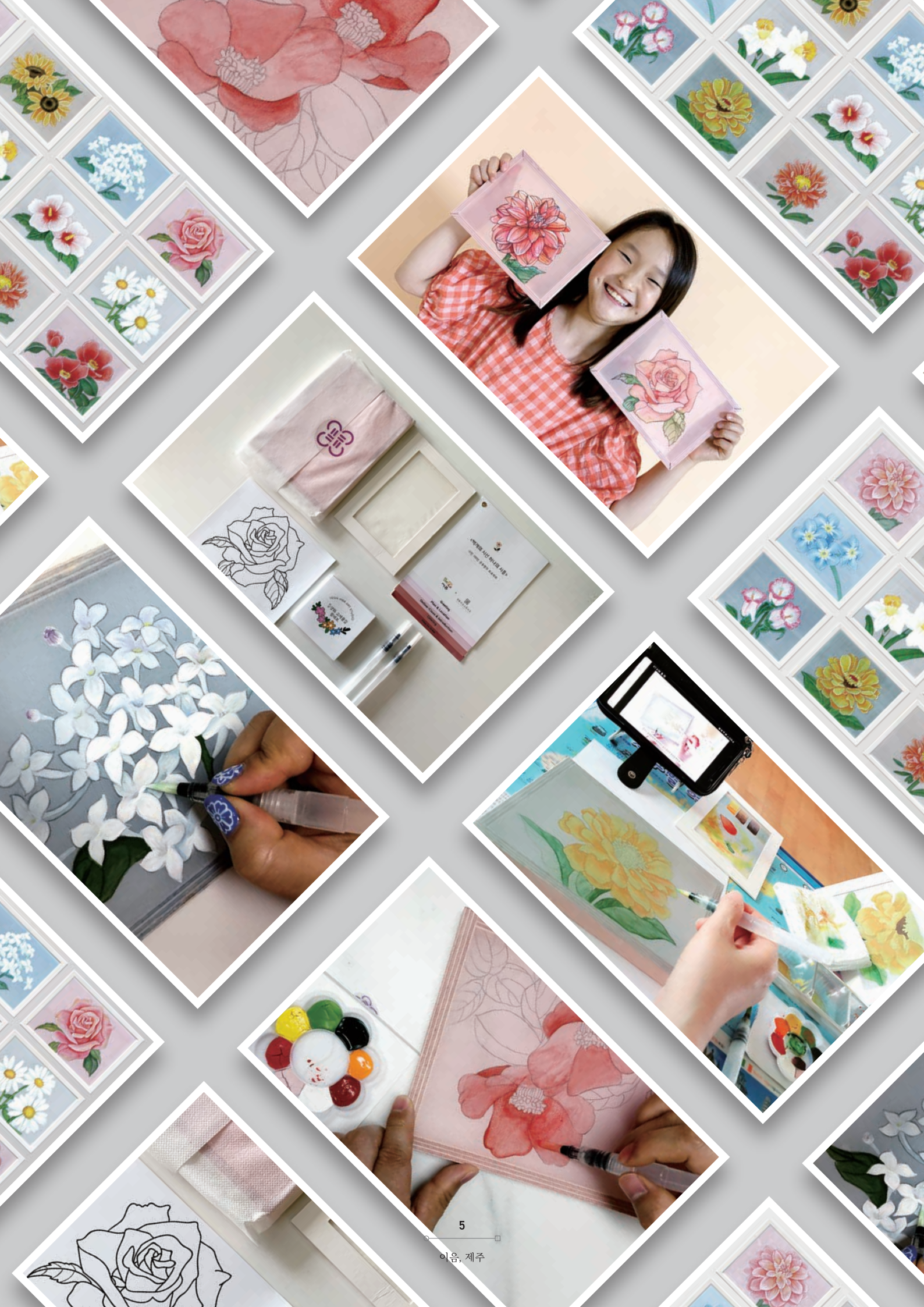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읽고 지난해 <시민 100인 공동창작 프로젝트 - 백 개의 시선, 하나의 시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00명의 시민이 각자의 공간에서 '신청, 창작, 취합, 전시'를 한 번에 이루는 '시민 원스톱 창작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사례였다.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진행된 시흥의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창작을 통해 예술가가 되어보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공동작품 전시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힌 의미있는 문화적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람도 다른 동물처럼 놀이를 즐긴다. 사람의 놀이가 동물의 그것과 다른 것은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그렇기에 예술은 결국 최고 지경에 이른 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200명이 마음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면 그 재미와 의미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시흥에서는 개별 창작키트를 제공받아 가이드영상을 토대로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한 다음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처음 시도한 공동 창작 프로젝트 이기에 완성된 작품이 얼마나 회수되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2주간의 주어진 기간 동안 100% 회수되는 모습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예감했다. 자신의 생일에 해당되는 탄생화를 비단 화판에 그려 동양화 기법으로 채색하도록 구성해 각각 작업된 작품들은 추후 하나로 모여 시흥을 상징하는 오이도 전경을 완성하는 형식이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적 긴장해소와 공동체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놀이가 늘 그래왔듯이.

도시'재생'사업을 도시'놀이'사업이라 생각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낯은 도시를 신식의 도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낯은 도시에 재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더 즐겁게 하는 것 말이다.

제주는 자연이 가장 큰 무기다. 이 자연과 어울리는 도시를 만드는 것, 자연 속에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주 도시재생사업의 숙제다. 그것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사업들은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놀자,  
즐기자,  
지금.



## 리트릿을 위한 가장 좋은 마을 - 월평

여행은 독서보다 흔한 취미다. 아니 흔하고 쉬운 취미'였다.

팬데믹으로 여행은 피해야 할 것, 어려운 것, 위험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생산성에 대한 강박은 접어두고 그저 놀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여전히 여행이다. 여행이라 하면 꼭 유명한 어딘가를 들르고, 남들 먹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인증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의 기준에 내 판단을 맡기지 않게 되었다. 오로지 낯선 곳에 있는 나를 누리는 것. 그렇게 그곳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얻는 것. 팬데믹 시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안락한 고독일지도 모른다.

제주에서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에메랄드 빛 바다를 보기 위해 함덕 해수욕장에 가고, 백록담을 인증하려고 한라산을 올랐다. 겨울에는 동백이 핀 서귀포 남원에 갔고, 봄에는 유채가 흐드러진 녹산로나 꽃비가 내리는 제주대학로를 드라이브했다. 서귀포 월평마을은 서귀포 도심에서 중문관광단지를 가기 위해 그저 지나치는 곳이었다. 그런 월평마을에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이유는 지금이 여전히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팬데믹은 우리의 여행형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하던 일에서 조금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하다'는 뜻의 리트릿Retreat 여행. 몸과 마음을 조용한 공간으로 옮겨놓고 나의 중심을 찾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서귀포 월평은 이 리트릿을 위한 가장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향나무 빼곡한 좁은 골목.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속도를 맞춰주는 듯한 정갈한 돌담, 담 끝에 만나는 수국밭, 멀리 보이는 한라산, 조용한 월평포구의 윤슬, 밤이면 수줍게 뜬 달까지.

혼자 혹은 둘이 월평 바다를 보며 물멍, 월평의 달을 보며 달멍, 그리고 월평의 꽃을 보며 꽃멍하며 놀아보자. 그렇게 또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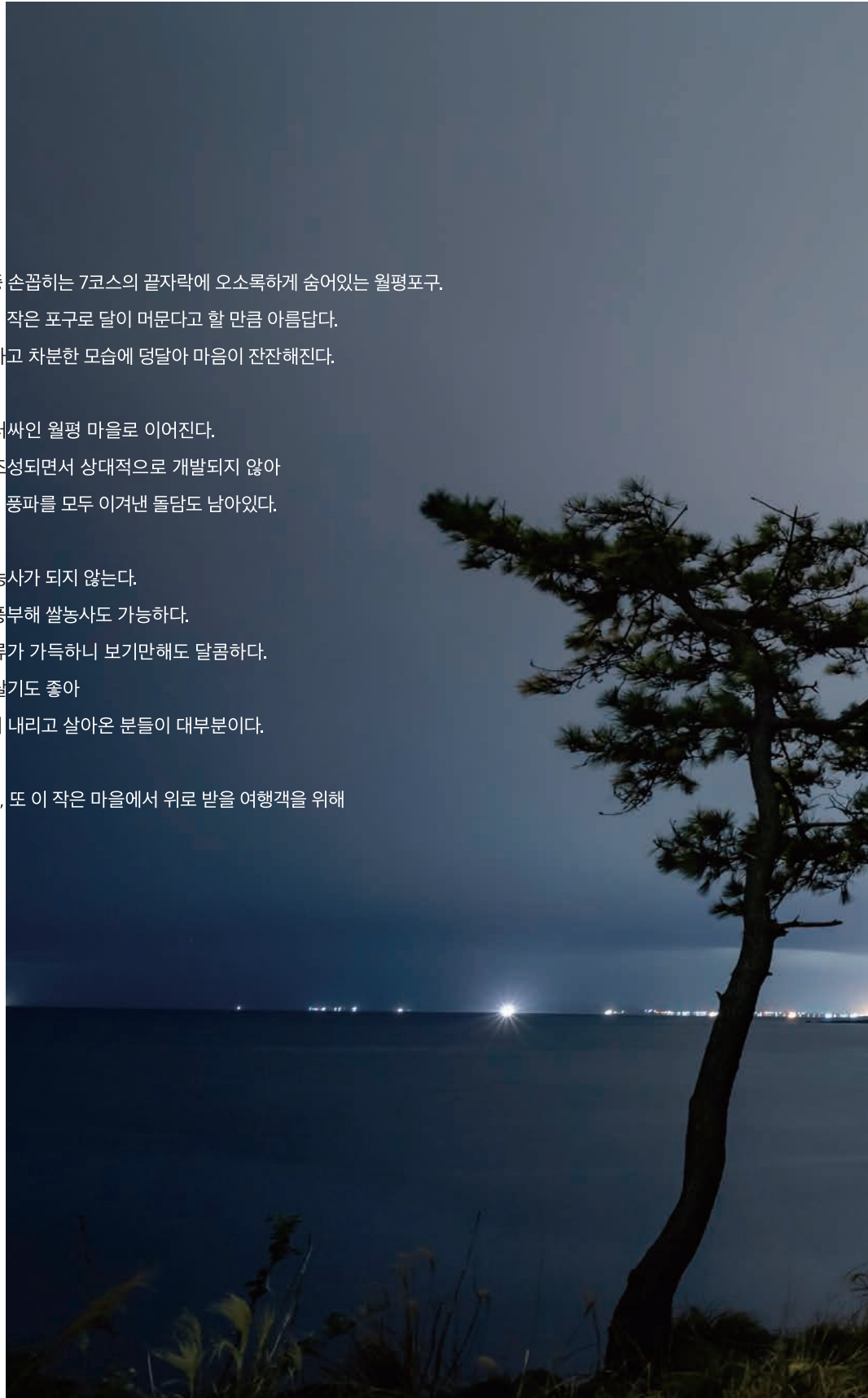
## 달을 닮은 마을, 해처럼 따뜻한 사람들

제주 해안을 따라 걷는 제주올레길 중 손꼽히는 7코스의 끝자락에 오소록하게 숨어있는 월평포구.  
작은 고깃배 대여섯에도 짝 차버리는 작은 포구로 달이 머문다고 할 만큼 아름답다.  
황혼의 바다를 보고 있자면 그 소박하고 차분한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잔잔해진다.

포구는 달모양의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월평 마을로 이어진다.  
주변 지역이 신도시와 관광단지로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100년이 넘는 초가집도 있고, 제주의 풍파를 모두 이겨낸 돌담도 남아있다.

화산섬 제주는 물이 고이지 않아 논농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월평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 쌀농사도 가능하다.  
이런 땅에서 곳곳에는 주홍빛 만감류가 가득하니 보기만해도 달콤하다.  
따뜻한 기후에 바람이 적은 이곳은 살기도 좋아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태어나 뿌리 내리고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온화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위해, 또 이 작은 마을에서 위로 받을 여행객을 위해  
골목을 밝히고, 담을 가꾸고 있다.









## 세상의 풍파는 머물지 않게 하는 험거운 마음이되, 자신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돌담처럼 살아보라

월평마을은 잘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지금도 제주 전통방식의 초가가 남아있고

가장 제주스러운 풍경,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골목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꼬불꼬불 올레담,

척박한 밭의 돌들을 모아 쌓은 밭담과 같은 흘겹의 외담.

두 줄로 두텁게 쌓아 봉분 근처 산짐승을 막은 겹담의 산담,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축담,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여러층으로 쌓은 어욱대와 같은 잣담,

외세를 막기 위해 높게 쌓은 성담 등 제주는 돌담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깝다.

월평마을에는 올레담, 산담, 성담 등

다양한 형태의 돌담이 그대로 남아 걷다보면 쉽게 만나진다.

영성해보이지만 제주의 거센 바람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은

바쁜 일상을 빨리빨리 해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집집마다 반달모양의 은색 플레이트에 쓰인 이름이 눈에 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라진 문패다.

하지만 한자로 이름이 쓰인 세로가 긴 직사각형의 패가 아니다.

달을 닮은, 한글로 쓰인, 부부 모두의 이름이 적힌, 단아한 서체로 쓰여  
월평 마을의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문패가 준 효과는 그저 예쁜 골목만은 아니다.

이름을 내놓고 살다보니 골목은 더 깨끗해지고, 서로는 더 가까워졌다.

같은 디자인의 문패가 골목마다 이어지니 공동체는 더욱 돈독해졌다.

단정한 돌담으로 이어지는 단아한 문패와 그 이름의 사람들이 조용히 환영한다.

부디 이곳에서 푸근한 서귀포를 즐기길.





# 수국, 피다

## 답다니 수국밭

입장료 1인 4,000원(수국 한다발 포함)

입장 시간 오전 8시~밤10시

•일몰 이후 방문시 호롱불 대여

주소 제주 서귀포시 월평로50번길 17-30

여름이다. 수국의 계절이다.

비가 올듯 말듯 한 날씨.

한라산 중턱까지 구름이 내려 앉은 날.

월평마을 수국밭의 꽃망울이 하나둘 터졌다.

이해인 수녀의 잇구처럼

수국의 꽃잎마다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흐른다.

작은 꽃들이 모여 빙글어진 모양이 곱다.

꽃이 소중한 이유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다.

월평의 수국밭도 그렇다.





## **<답다니 수국밭>을 운영하던 지역 주민과 월평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콜라보**

영국의 자선단체 <더 브리티시 내셔널 가든 스킴 The British National Garden Scheme>이 지난 백 년간 해 온 것처럼, 월평 마을은 현재 지역 주민의 정원과 협업하여 마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실험 중이다. 정성껏 가꾼 수국밭을 이웃에게 개방하고 그곳을 찾은 이들에게 월평의 마을자원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마을로 환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건물이나 상품을 만든 것이 아니다. 없는 자원을 억지로 이식해 다른 마을과 똑같은 뻔한 상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한 지역 주민의 자원에 재생센터의 도움을 더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

폭주족 같은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면, 여행의 속도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월평은 대안적 여행의 방식으로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 곰살맛은 월평사람들

수국밭 옆 수국마켓에 들어갈 가구와 전시대를 손수 만들던 월평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월평마사협') 강영택 이사장이 힘든 내색 없이 농담을 톡 내뱉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합원들과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는다. 오랜시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농담하고 웃으며 지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마을은 원자화된 개인들이 아니다. 각기 다른 삶과 경험, 성격,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만나 결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는 필수, 일의 순서는 합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되지 못하면 마을은 파편화되고 결국 덜 좋은 삶의 터전이 되고 만다.

그래서 개인에 치중하지 않고 조합원과 주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월평 마사협의 목표다. 서로를 배려하고 단합해 마을을 키우고 그동안 그래왔듯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 말이다.

빈곤과 수탈 등 순탄치 않은 역사에도 월평마을의 주민은 서로 협조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 왔다. 제주에서 최초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던 월평마을은 공동체가 힘을 모았을 때의 위력을 안다. 현재는 선조들이 다져놓은 공동체 기반에 '도시재생사업'을 더하여 후손에게까지 마을 유산을 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평의 마을 자생을 위한 조직 운영 경험은 이후 현장지원센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 진행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담다니 수국마켓

월평 마사협이 수국밭 옆 돌창고를 개조해 오픈한 마켓. 지역주민의 만감류를 착즙한 주스부터 천연염색한 마스크 등 지역 주민의 정성이 담긴 제품을 판매한다.



#### 만감류 꾸러미 판매사업

월평마을의 만감류를 골고루 담아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월평의 스토리와 함께 판매, 600%가 넘는 달성률로 시장성을 확인했다.

# 월평마을 안내도





##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설 주거지지원형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 노력을 돕고자 하며, 주민/전문가/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기회 확장과 마을 자원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또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노력하고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다섯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환경개선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 ‘주거지지원형’ 유형입니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물리(주택노후) 3가지 쇠퇴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5만~10만㎡ 내외의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 100억 원과 지방비 대응투자 66억 원 등 최대 1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 구분    | 주거재생                                   |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                      |
| 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                         | 도시경제 기반형             |
| 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법<br>*도시재생법<br>(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한 곳)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대 상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 특 성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 기 간   | 3년                                     | 4년                                       | 4년                      | 5년                      | 6년                   |
| 면 적   | 5만㎡                                    | 5만~10만㎡                                  | 10만~15만㎡                | 20만㎡                    | 50만㎡                 |
| 내 용   |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 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도로정비 可) |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생활편의시설(신규도로 확폭 可) | 이전·유희공공시설을 활용한공동체 거점 조성 |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시설 구축 |



제주 서쪽에서 가장 유명한 항은 누가 뭐래도 모슬포 항이다. 철이 되면 모슬포 시장을 찾게 하는 대방어를 비롯해 멸치, 자리 등 대정의 특산물은 훌륭하다. 또 3월 초부터 5월까지 가파도를 가득 채운 청보리의 물결은 봄에 제주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설레는 석양과 해안선 끝에 고깃배들이 밝히는 불빛, 해녀들이 갯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까지 서귀포 대정읍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까지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최악의 유배지였으며, 조선 말기에는 민란의 중심지였다. 일제 강점기 때는 알뜨르 비행장과 땅굴진지가 증명하듯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였고, 그 옆은 4.3 학살터 섯알오름이다. 한국전쟁 때는 이곳 모슬포에 있는 육군 제1훈련소에서 50만 여명의 장병들이 훈련을 받은 후 전선으로 나가야 했고, 중공군 포로들이 죽어가던 포로수용소는 지금은 성당이 되어 남아있는 곳이 이곳 서귀포 대정이다.

### “대정은 제주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강경문 센터장의 말처럼 대정의 가장 큰 자원은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이고, 지역주민들의 기억이다. 이것들을 지역주민들의 손끝에서 자라고 잡히는 농수산물과 결합해 대정만의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것이 대정읍현장지원센터가 하는 가장 큰 일이다.





# 도시락에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

대정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반한다. 바다가 선사하는 신선한 해산물은 오직 산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시각을 매료시키고 미각을 만족시키는 대정바다가 익숙해 질 즈음 대정이 슬며시 꺼내놓는 또 다른 매력은 거리마다 역사가 남겨 놓은 흔적이다.

제주로 유배온 추사 김정희의 반찬투정과 일제가 만든 전분 공장, 한국전쟁의 참상까지 오롯이 느끼며 대정을 돌아보다 출출해질 즈음 마을주민이 건네는 도시락을 만날 수 있다.

그때 그 시절 소금간만 되어 있어도 충분했을 주먹밥은 전복 하나가 큼직하게 들어가 우리를 반긴다. 어려웠던 때 계란 후라이 하나 밥 속에 숨겨져 있으면 황재한 기분이 들었던 옛날 도시락은 이제 대정의 멸치와 게우젓갈로 입맛을 돋운다. 상웨떡과 보리빵 옷을 입은 햄버거는 제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모두 마을 주민들이 마을 부엌에서 건강하게 만들었다.

곧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대정읍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특화체험센터에서 주민들과 마을을 거닐며 도시락을 만날 수 있다.







# 제주의 먹거리

다시 말하면 입 아프지만, 제주는 섬이다. 육지와는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음식에 그렇다.

제주 음식은 서민의 음식이다. 민중들의 곤궁한 살림이 만들어 낸 소박함이 담겨있다. 쌀이 귀해 다양한 잡곡으로 밥을 지어 한 그릇에 담아 가족 모두가 나눴다. 가을, 겨울에는 조, 메밀, 팥, 콩, 수수, 기장, 감자, 무 등을 섞은 밥을 했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봄에는 고구마, 쑥, 혹은 톳이나 모자반 같은 해초를 섞은 밥을 지었다.

잡곡밥에는 생선을 이용한 맑은 국을 함께 해 거친 밥을 쉽게 넘기도록 했다. 국은 멸치, 고등어, 갈치, 전갱이 처럼 곧 비려지는 것을 재료로 했다. 다른 곳에서는 국으로 끓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오직 바다에서 식탁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제주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정의 도시락은 과거 제주사람들이 먹었던 정성은 그대로, 하지만 풍요로운 재료는 달리해 제주의 마음을 담았다.



## 멜 국

두툼하고 싱싱한 멜(멸치의 제주어) 몇 마리를 넣고 보글보글 끓인다. 바다에서 막 건져 끓이지 않으면 비려서 못 먹는다. 그래서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다. 작은 고기는 잡지 않는 것이 제주 사람들의 철칙이라 최소한 손가락 굵기는 되어야 제주 사람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었다.



## 빙 떡

메밀가루로 지진 전병에 겨울무를 채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 같이 심심하다. 제주의 대표음식이라 해서 관광객들이 한 입 베어물고는 그 재미없는 맛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하지만 이 빙떡에 자반 생선, 특히 잘 말린 옥돔을 구워 찢기한 살코기 한 점과 함께 하면 누구라도 그 매력적인 맛에 빠져든다.



## 고기국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제주에 들어와 지금의 칠성로에 저잣거리를 형성하고 건면을 도입해 탄생한 음식이다. 보통 제주에서는 잔치 때 몸국을 끓였는데, 일제에 의해 바다 출입을 통제 당해 모자반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돼지를 삶은 국물에 경사때는 빠지지 않는 국수를 말아 대접한 것이 지금으로 이어진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설 일반근린형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노력을 돕고 주민, 전문가,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역량강화교육 시행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또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노력하고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다섯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도시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 ‘일반근린형’ 유형입니다.

‘일반근린형’ 사업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물리(주택노후) 3가지 쇠퇴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10만~15만㎡ 내외의 골목상권과 주거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액 100억 원과 지방비 대응투자 66억 원 등 최대 1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일반근린형’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 구분    | 주거재생                                   |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원형                                     |                          |                        |                      |
| 법정 유형 | -                                      | 근린재생형                                     |                          |                        | 도시경제 기반형             |
| 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법<br>*도시재생법<br>(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한 곳)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
| 대 상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 특 성   | 소규모 주거                                 | 주거                                        | 준주거                      | 상업                     | 산업                   |
| 기 간   | 3년                                     | 4년                                        | 4년                       | 5년                     | 6년                   |
| 면 적   | 5만㎡                                    | 5만~10만㎡                                   | 10만~15만㎡                 | 20만㎡                   | 50만㎡                 |
| 내 용   | 노후주거지 정비, 공동 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도로정비 可) | 노후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생활편의시설(신규도로, 확폭 可) | 이전·유희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 조성 | 공공기능 및 상권 활성화 위한 시설 조성 | 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 앵커시설 구축 |

먹고 노는 잡화점

# 칠성로 오각집

해가 바다 뒤로 넘어가면 제주의 재미도 불이 꺼진다.  
그저 숙소에서 사다놓은 술과 주문한 치킨을 먹으며  
늘 살던 그대로 그렇게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에  
제주를 찾은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말한다.

그런 우리의 밤문화를 책임질 공간이 생겼다.  
칠성로 오각집이다.

재미있는 외관에 한번 반한 후 문을 열고 들어서면  
뽕 뚫린 공간에 자유가 가득하다.  
한 켠에 놓인 피아노와 드럼, 멀지 않은 거리의 객석에서  
주변을 감싼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다양한 맥주와 유기농 콜라를 마시다가  
구월마님(구 멩굴마님)의 굿즈까지 만날 수 있다.

작곡가 노영심의 연주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이 플레이어라면 운명같은 관객을 만날 수도 있는 곳.  
늘 문화가 고픈 제주도민부터 제주를 만끽하고픈 여행자까지  
이 곳의 자유에 빠져들어보길.

‘칠성로 오각집’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칠성로 문화야시장의 거점공간으로,  
칠성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모델로 조성되었다.

## 칠성로 오각집

휴무      매주 월, 화  
오픈 시간    오후 3시~자정  
주소      제주시 관덕로15길 11-1 1층.  
인스타      ogakjib









# 포스트 아일랜드

제주 사람들의  
손맛나는 물건

제주 원도심 칠성로 초입에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매장이 있다.

포스트 아일랜드다.

제주의 작가와 여성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한

다양한 종류의 제주 느낌이 가득하다.

제주를 찾은 사람들은 이곳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품샵에 들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의 소품샵을 채운 물건들은

제주에서 모티프를 따 제주 밖 공장에서 만든 경우가 많다.

그런 제품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한쪽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하지만 포스트 아일랜드의 제품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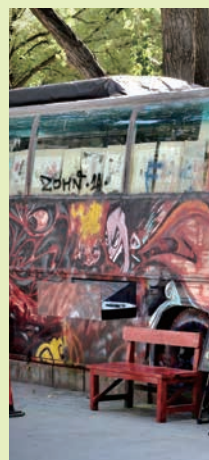


전통의 제주 하르방부터 만든이의 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브론즈 제품,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손바느질 마스크, 감과 쪽으로 색을 입힌 제품들은  
미적 감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만족시킨다.  
또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제주에 고스란히 남아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니 착한 소비를 하기에 적당하다.

이웃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만드는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제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공방공간, 판매공간을 마련했다.

#### 포스트아일랜드

휴무      매일 일요일  
오픈 시간    아침 10시~오후7시  
주소      제주도 칠성로길 5  
연락처      064-758-4101  
인스타      bomna\_ljhr1







도시재생과 예술이 만난 해외사례

## 베이징 798 예술구

1993년에 제작된 <쥬라기공원 1> 영화 한편이 벌어들인 수익이 현대자동차가 1년간 150만대를 수출한 수익과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한 세대로 지나지 않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고,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은 강수연, 전도연, 김민희에 이어 한국 어로 연기하고 연기상을 받았다. BTS의 다이내마이트Dynamite는 군사 강대국이 가진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을 발휘하고, 한국인인 이들이 만든 버터Butter를 세계인이 듣고 부르고 즐기고 있다. 소프트파워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렸다. 이렇듯 문화는 힘이 세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국가다.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문화라는 점에서 중국과 예술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의 현대사를 알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은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문화대혁명'을 겪었다. 실각 위기에 몰린 마오쩌둥은 반대파를 숙청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천년에 걸쳐 쌓은 문화유산까지 숙청했다. 그리고 반세기 도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에 2006년 한 '예술구(艺术区)'에 문화발전을 상징하는 문화창의산업기지(文化创意产业基地)를 공식지정했다. '798예술구'다.

1970년대에는 무기를 만들던 공장, 1990년대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던 이곳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베이징 정비 계획으로 빈공장이 늘기 시작했고, 곧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었다.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과 공업 시대의 증기관과 통풍관, 문화대혁명 시대의 붉은 표어들, 노동자들의 낙서까지. 사회주의 냉전 시대의 유물들은 건물에 기록된 채 그대로 남았다. 공업지대라는 도시의 쓸모는 상실했지만, 남은 흔적은 인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798 예술구'는 곧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원래 자리잡고 있던 예술가들은 갑자기 오른 임대료에 밀려났고, 예술공간은 상업지역에 잠식되었다. 지금의 798 예술구는 여전히 베이징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관광지이자 중국의 현대 문화예술을 이끄는 곳이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희생되었다. 성장에 집중한 행정 주도 사업에서 문화의 주체, 지역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원도심에서 칠성로 상인회와의 협업으로 유희 공간을 지역의 예술가들과 연결하고 있다. 원도심의 낙후된 공간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앞에 나서지 않고 민간과 민간이 만나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다시 말해 판을 깔아주는 행정의 자리매김. 베이징의 798 예술구보다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의 미래가 더 밝아보인다.







[illegible]



윤상순

## 월평 마을 어르신 놀이 워크숍

오래간만에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던

마을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미 백신을 맞았지만, 그래도 마스크로 꼭꼭 코와 입을 막았다.

하지만 마스크로도 반가움이 가득한 얼굴은 가려지지 않는다.

월평마을에서는 주4회 2시간씩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를 마련했다.

함께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음식도 나누면서

팬데믹 시국에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색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어르신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고 해결한다.

손과 눈의 협응력을 높여 퇴화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늘리고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앞에두고 앉은 할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신중하게 색을 골라 정성껏 칠하며 한참을 몰두한다.

이들의 집중한 모습을 보다보면

순수한 즐거움으로 이 활동 자체를 즐기는 모습, 놀이 그 자체다.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한 월평 할망들의 얼굴.

그들이 그리는 꽃보다 아름답다.

김화월

강부자





## 제주 원도심과 광해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잇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으라차차 어쨌든 원도심, 2021년 광해, 원도심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광해군 주요 사건 (광해군 탄신일(6월), 광해군 입도일(7월), 광해군 승하일(8월), 광해군 제주 출도일(9월)) 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 기획 콘텐츠 개발 및 체험형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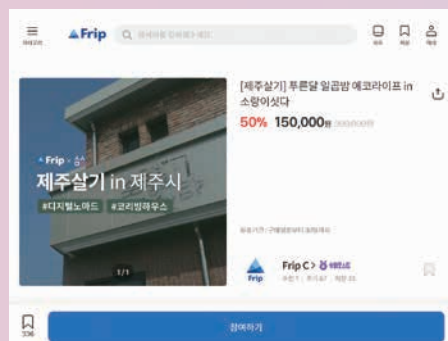
## 도시재생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21년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시 문화도시센터는 도시재생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제주시 원도심 등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제주시 문화도시사업을 연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 주민공용공간 <소랑이싯다> 정식 운영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탄생한 코리빙 하우스 <소랑이싯다>는 신산머루마을의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노마드 워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5월 16일부터 프리프 홈페이지(<https://frip.co.kr/products/149973>)에서 예약 가능하다.





## 문화기획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동요를 작사, 작곡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서귀중앙초등학교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기획학교’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작곡가 방승철 씨의 수업을 통해 서귀포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제주의 자연과 제주 엄마들의 모습을 담은 노랫말에 멜로디를 붙여 동요를 완성하고, 합창과 음원의 발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대정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4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대정 주민 40여명과 함께 대정읍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을 수료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대정읍 역사문화투어의 마을해설사나 마을 쿠킹클래스 강사, 마을방송국 대정몽생이TV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 대정읍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 가입시 활동가 자격이 주어진다.



## 모슬포 사진전 개최

서귀포시 대정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호텔케니모슬포와 '대정읍 도시재생, 마을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3자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첫 협력사업으로 센터가 수집한 대정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옛 사진 30여점을 호텔케니모슬포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12월까지 상설 전시한다. 전시 테마는 '일제 강점기 모슬포', '강병대 그리고 모슬포', '모슬포 주민 생활사'로 구성되어 있다.



##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정 및 화재예방·돌봄활동 수행

남성마을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되었다. 이에 남성마을 도시재생지역 내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 및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활동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과 취약계층에게는 직접 찾아가 소화기 및 단독형 화재감지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 화재와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을 한층 올렸다.





## 어린이 도시재생활동가 양성

남성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어린 학생들의 도시재생 전후방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주남초등학교와의 협업프로젝트인 <어린이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을 진행중이다. 실습과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 수업은 새활용, 지역사잔 및 문화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2020년 총 55명의 어린이 도시재생 활동가를 양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중이다.



## 월평마을 영상 공모전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다채로운 자연/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축적하고자 영상공모전을 진행중이다. 지난 4월말 1차 심사를 통해 출품된 42팀 중 영상 제작에 들어갈 15팀을 선정했다. 입상작에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서귀포시 월평마을 영상공모전**  
2021.03.29.(월) ~ 04.25.(일)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한·국산 뉴미디어 영상 제작을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특색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월평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 생활 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월평마을 영상공모전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  
· 공모 주제: 월평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 생활 등  
· 공모 대상: 월평마을 주민, 지역주민, 학생, 일반인 등  
· 공모 방법: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공모처에 방문하여 신청  
· 공모 기간: 2021.03.29. ~ 2021.04.25. (월요일 제외)  
· 공모 장소: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또는 공모처에 방문하여 신청  
· 공모 대상: 월평마을 주민, 지역주민, 학생, 일반인 등  
· 공모 방법: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공모처에 방문하여 신청  
· 공모 기간: 2021.03.29. ~ 2021.04.25. (월요일 제외)  
· 공모 장소: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또는 공모처에 방문하여 신청

**시상 내역** 총 1,000만원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참가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접수 (064-727-0617)  
· 신청서 접수 후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접수 (064-727-0617)  
· 심사 결과 발표 후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접수 (064-727-0617)

**발행일** 2021년 6월 15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1) **발행, 편집인** 유희동  
**기획, 편집** 안목 **디자인, 인쇄** 디자인아웃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이음,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